

2018년 1월

2018년 새해를 맞아 평안들 하셨는지요? 후방에는 기록적인 추위가 자주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이곳은 모든 생명체를 곧 말라버리게 할 것 같은 강한 바람이 무더운 태양열과 함께 모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은 날은 "바람이 없었으면" 하고, 바람이 없으면 "바람이 왜 없지.." 라며 이중적인 마음으로 지낼 때가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후방의 식구들이나 이곳의 모든 이들이 살아 일하고 있으니 하나님 은혜는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감사하며 그 역사하심도 여일함을 믿습니다.

새해들어 첫 소식을 나눕니다.

[탕가 신학교 소식]

* 신입생 입학

올해는 신입생들이 많이 입학 했습니다. 남학생 19명, 여학생 7명으로 총 26명이 입학하여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각 지역에서 그리고 각기 다른 교단에서 학생들을 보내왔습니다. 모두가 이번 첫 텀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 이번 텀 이냐구요? 1년 중 가장 날씨가 힘든 시기라 경험으로 볼 때 학업을 포기하는 이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 신학교 주위 환경 변화

1997년 6월 처음 탕가에 도착해서 정부로부터 신학교 부지를 얻었을 때에는 허허벌판과 같았던 곳 이었는데 이제는 탕가 시내가 커지면서 신학교 주위에 많은 집들이 늘어나고 마을이 제법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교 이웃에 돼지 사육장이 들어서서 소음과 악취가 심각한 환경오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이 염려되어 직원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 했지만 저 외에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없어 마음이 답답 했습니다. 동물과 함께 사는 삶에 익숙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차이점 이라고 생각하고 말아야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돼지 사육장을 옮겨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 2017년 첫 번째 장학금 수여

지난 해에도 여러 교회들과 개인적(또는 선교사들과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으로 보내주신 정성스런 현금(장학금)으로 총 26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신학교에서 평균 2일 이상 먼거리에서 오는 학생들이 우선으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왕복 차비와 용돈까지 포함하면 학비(한 학기에 약 \$30에서 일년 \$100)의 4배이상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가까이에서 오는 학생들과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올 해에는 22명의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으며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교회들과 개인적으로 협력의 손길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 외에 석사과정 1명과 정식 학사과정 2명도 학비를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아름다운 일은 이땅에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조

금이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열정들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신학교 장학금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동참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리빙 스톤 중,고등학교 소식]

먼저 올 한 해 함께 살아갈 리빙 스톤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 신입생 및 재학생

총 54명의 학생들이 엄격한 입학시험 과정을 통과하고 입학하였습니다. 2018년 정원 목표를 50-60명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적당한 인원이 입학했습니다.

그리하여 전교생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학년 54명,

2학년 43명,

3학년 74명,

4학년 52명 그리고

5학년 (고1) 20명

총 243명입니다.

*교사

중,고등학교를 합하여 총18명의 교사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생이 들어 올 시기에 두 명의 교사가 더 합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올해 들어 미래를 내다보며 투자하는 마음으로 컴퓨터 과목 (Information and Computer Study)과 차별을 둔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식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전교생 대상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탄자니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학교만 개설한 강의로 리빙 스톤 만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체계화된 수업을 위해 이 분야에 재능이 있고 자질이 있으신 분들의 커리큘럼에 대한 도움을 기다립니다. 현 담당교사는 컴퓨터 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모든 교사들은 학교 안의 숙소 (총 7동)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

= 사서 1명

= 요리사 및 조리사 6명

= 환경 미화원 및 정원사 5명

= 운전기사 1명

= 사감 (식자재 관리, 간호사 겸임) 2명

= 경비원 7명

이하 총 22명

@ 지난해 2학년 국가시험 결과

지금은 그들이 3학년이 되었습니다.

모두 74명이 시험을 치루었고 1등급 65명, 2등급 8명, 그리고 3등급 1명으로 지난해 보다 향상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4학년 결과는 2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건축 소식

* 농구장겸 테니스장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닥 paint가 완전히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도서관 한쪽 구석 미관상 보기 좋았던 장소가 학교의 인상을 바꾸어 놓으며 학생들이 가장 선호할 장소로 기대를 받으며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등학교 기숙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건물이 규모가 있다 보니 내부공사의 시간도 길어집니다. 계단 등 일부를 제외하고 타일 공사가 끝났으며 화장실 공사와 수도관, 배수시설 등의 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들은 내부 페인트와 창틀 (알루미늄과 나무로 제작) 제작, 그리고 옷장과 침대(침대는 올해 것 준비됨)를 들여 넣는 일입니다. 5월 말까지 모든 일을 끝내고 6월 말부터는 사용하려고 합니다.

@ 학교 지역사회와의 교제.

* Muheza 군(조그마한 도시) 병원건축 동참

Muheza (무헤자)는 저희 리빙 스톤 학교가 속해 있는 군의 지역 명칭입니다. 이 곳에 오래 전에 유럽의 루터란 교회에서 세운 병원이 있지만 시골 각처에서 유입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군 차원에서 새로운 병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 일에 리빙 스톤 학교에서도 적은 금액이나마 그동안 모아진 주일헌금과 모든 리빙 스톤 식구들의 특별헌금을 합하여 약 \$2,700(약 탄자니아 6백만 실링)을 전달 했습니다.

학교 부지 50에이커를 무상으로 받은 리빙 스톤으로서는 사람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에 적으나마 동참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학교 상황을 보아가면서 앞으로도 동참의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이 일에 후방의 뜻있는 분들과 교회들의 동참을 환영합니다.

@ 박선교사 부부 남아공 방문

좋았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22년 넘게 사역 하면서 꼭 방문하고 싶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시고 처음으로 선교지를 방문하신 저의 막내 누님을 통하여 여행 경비 일체를 마련해 주셔서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방문 목적은 여러 가지였으나 먼저는 아프리카 최남단 대륙에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처음으로 도착한 네델란드인들(dutch)과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조금이나마 밟아보면서 그들의 개척정신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나 겪었을 그러나 결코 같지 않은 아픔과 슬픔의 고비를 넘어 독립 이후에 어떠한 변화와 성장통을 앓고 있는지, 우리가 서 있는 사역지에 더욱이나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 그 아픔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장과 발전으로 하나님 앞

에 자유한 민족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부터 가르쳐 주시길 기대하며 여행을 떠났습니다. 개척자인 백인과 원주민인 흑인, 그리고 개척자들이 데려온 노예 (말레이시아인)와 세월이 지나면서 혼혈인이 된 다양한 사람들 (칼라인이라 부름-minority로서 상대적으로 더 소외된 사람들). Apartheid (인종차별정책)등의 아픔을 겪으면서 발전을 이룩한 남아공은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 모두가 겪어야 했던 아픔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지요.

아프리카 최남단 이 곳 저 곳을 방문하면서 받은 느낌들은 우리 부부의 심령 속에 감격과 착잡함, 그들의 아픔을 되돌아 보는 기간이 되었고 동시에 우리들 사역지 탄자니아를 위하여 더 많은 기도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는 여행이었습니다.

@ 탄자니아 한인 사회 소식

올 들어 두 분이 세상을 떠나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현지인 선교사로서 오래 전에 한국 여인과 결혼하여 서울의 임마누엘(감리교회) 교회의 파송선교사로서 탄자니아의 감리교회 부흥을 위해 수고하신 비야몽구 (마문구: 한국명, 60대 후반) 선교사님께서 심장 이상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셧으며, 곧이어 NGO 기관을 통하여 소외받는 어린이들과 백색병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던 김나래 분(31세)께서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 모두가 신년 초에 갑작스럽게 당한 일들이라 한인 사회에 많은 충격이 되었습니다.

@ 박선교사 내외 탄자니아 내 신학교 졸업생 방문

2월 7일 부터 16일까지 탄자니아 서부 Kigoma지역 (왕복 약 3천km)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 목적은 졸업한 지 오랜 우리 신학교 동문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불어 계속해서 신학교에 입학할 전도자들을 찾기 위해서 입니다.

탄자니아 지도를 펴 보시면 사역지인 탕가와 정서 쪽에 위치 하였으며, 탕가니카 호수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른 3곳의 지역도 경유할 계획입니다. 안전 속에 좋은 열매를 맺는 여행되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 기도 제목

1. 신학교와 리빙 스톤 학교 모든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2. 탄자니아 한인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3. 고등학교 기숙사 마무리 일이 잘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호흡할 수 없는 우리들 이기에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에 맡기는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해 주신 선교회 모든 식구들과 교회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월 27일

탄자니아에서 김은래 박윤석 선교사 드림